

최고의 위로

송아현

며칠전에 '유원' 이라는 소설 하나를 읽게 되었다. 책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유원이, 친구인 수현 정현을 만나게 되면서 점점 자신에 대해 솔직해지고 끝 없는 성장에 대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내용인데, 난 현재 이 책을 내 인생 책으로 꼽을 만큼 좋아한다.

든든하고 잘 맞고 밝은, 동정도 뭐도 아무런 목적도 없는 그저 진짜 '친구'의 등장으로 유원이라는 인물이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허한 마음 한 구석이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.

평생 동안이나 내 편이 되어줄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? 말 없이 존재만으로도 위로 받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.

물론, 나한테도 그런 친구들이 존재한다.

따뜻한 샤워, 치즈 향이 듬뿍나는 햄버거와 뽀뽀 마른 감자튀김, 온 몸을 들썩들썩 대게 만드는 신나는 댄스 음악, 미친듯이 매운 라면, 내가 태어날 때쯤 나온 웃긴 시트콤 등등. 난 보통 주변의 정말 사소한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는다.

아무런 존재나 의미가 없는 것들한테도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나에게서 특별해 지는 것 같다. 마치 김춘수 시인의 <꽃> 처럼 말이다.

아무튼, 난 주변의 많은 것들로부터 위로를 받는다. 사물이나 음식 뿐만아니라 하나의 공간 그 자체인 친구도 있다.

그 친구는 바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앞에 위치한 넓은 잔디운동장과 그 옆에 트랙이다. 단언컨대, 난 이 친구를 가장

좋아한다.

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였다. 내가 일방적으로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. 5학년 때 우연히 밥 먹고 소화 시키려고 산책을 하러 나왔던 게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.

나는 초저녁에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트랙을 걷는 것을, 그 시간과 그 느낌과 그 분위기를 너무나도 좋아한다.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걸을 때, 그 순간만큼은 나는 내가 아니다. 걱정이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당당한 제2의 내가 걷는 것이다. 그런 생각을 하며 걸으면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·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굉장히 신난다. 이 위로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시험 전에 스트레스가 최상으로 치솟을 때 2배로 더 빛을 발한다.

그 운동장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은 건지, 나처럼 음악 들으면서 혼자 걷는 사람도,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러 오는 사람도, 아니면 애인이나 자녀와 같이 걷는 사람들도 많다.

물론 나는 이 사람들이 퇴근하고 잠시 나온 건지, 공부하다 나온 건지, 건강을 위해서 나온 건지, 과제 하다가 머리를 식히려고 나온 건지, 저녁 먹고 소화 시키려고 나온 건지 알 수 없다.

하지만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같이 걷고 있다는 건 같다. 나에게도 그런 것마저도 위로가 된다.

이처럼 사람마다 위로를 받는 방법은 각자 다 다르다. 누군가는 노래 가사 속에서 위로를 받고, 친구나 소중한 사람들한테서 위로를 받으며, 드라마 대사 속에서 한낱 희망을 얻고, 소설 속 주인공의 태도에서까지 위로를 받기도 한다.

그리고 지난 7월과 8월, 우리는 등수가 낮아도 높아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끝끝내 멋진 경기를 보여준 올림픽을 보면서



열광했다. 누군가는 퇴근 후 치킨을 뜯으며,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다가, 누구는 학원에 가기 전에. 각자의 위치와 올림픽을 즐기는 방법은 다 달랐지만,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는 것은 모두가 같았다.

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, 각자 자기만의 위로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다. 위로 받는 방법을 몰라서 시기를 놓치고 놓치고 또 놓치게 되면 마음의 병은 흰 도화지에 검은색 물감처럼 점점 번져나갈 테니까.

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.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고, 주변의 위로가 되는 존재들을 의식하고, 내일의 햇살을 행복하게 즐기라는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.